

中原文化圈 建築의 特徵

金正基

(一)

中原文化圈을 設定할 수 있다면 그 核心地域을 形成한 것은 忠北中原郡을 中心한 忠北道 一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忠北道 內에 現存하는 古建築으로는 統一新羅時代에서 朝鮮時代에 이르는 여러 時代와 時期에 걸쳐서 建立된 石造建築과 朝鮮時代 後期에 建立된 木造建築이 있다.

이들 石造建築이나 木造建築들이 他地域의 石造建築이나 木造建築과 比較檢討하여 그 地域의 建築의 特徵을 찾는다는 試圖는 從來 한번도 實施된 바 없었다. 이와 같은 研究 즉 우리나라 各種 類型의 建築을 地域別로 比較檢討하여 各 地域에 따른 그들이 갖는 特徵을 探索한다는 作業은 住宅建築 以外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實施된 바 없었고 다만 汎韓半島의 各 時代 및 時期에 따른 樣式系統, 變化, 特徵 등에 관한 研究가 主로 實施되어 왔다. 따라서 筆者 역시 「中原文化圈 建築의 特徵」이란 主題로 極限된 한 地域의 建築의 特徵을 模索하는 것은 처음 試圖하는 일이다. 이 作業은 극히 概略的인 比較 檢討에 지나지 않았으나 探索의 結果 若干의 地域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要素를 抽出할 수 있었다.

비록 概略的인 檢討를 통해서 얻은 結果이기는 하였으나 이 作業을

통하여 느낀 所感은 將次 우리나라 建築을 좀 더 자세히 理解하려면 이와 같은 地域間에 나타날 수 있는 建築의 特徵을 體系的이며 精密한 比較 檢討를 거쳐 抽出하는 일도 建築史研究에 負荷된 重要한 한 分門이라는 것이었다. 또 이 建築에 있어서의 地域間의 特徵의 差異가 抽出되므로서 그 原因을 究明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周邊學問의 研究에도 도움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忠北道 內에 遺存하는 古建築 가운데 國家指定文化財는 一九八三年 九月末現在 石造建築 一四點과 木造建築 三點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숫자는 결코 他道에 比하여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러나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된 것은 역시 九月末現在 石造建築 一九點, 木造建築 六四件으로 그 수가 매우 많다. 이와 같은 地方指定文化財의 수가 많다는 事實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극히 先驅的인 文化財保存策을 取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흔히들 朝鮮時代 文物은 特殊한 部門을 除外하고는 그 類形과 遺構가 많다고 하여 疎忽히 다루어지는 傾向이 있었다. 따라서 그 保存에도 거의 留意하고 힘 쓰는 경우가 적었던 것이 一般的인 事實이다. 그러므로 朝鮮時代의 이들 文物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인멸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것이 加速的으로 進行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事實이 계속 進行된다면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朝鮮時代의 많은 文物이 없어져서 어느 時期에 가서는 新羅時代나 高麗時代의 文物보다 오히려 朝鮮時代 文物이 더 稀貴하게 되는 奇妙한 現狀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여 걱정되기도 한다. 지금 一〇〇年 밖에 되지 않은 文物도 一〇〇年 후에는 二〇〇年된 文物이 되며 四〇〇年 후에는 五〇〇年이나 된 貴重한 文化財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미리 感知하여 忠北에서 現 時點에서 國家地定文化財가 되기 어려운 文物을 多量으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그것의 保存에 힘 쓰고 있다는 事實은 매우 賢明한 일이며 道當局은 물론 忠北의 各界人士들의 文化財에 대한 깊은 理解에 讚辭를 드려야 하며 한 없는 고마움을 느끼는 바이다. 또한 이와 같은 先人の 슬기가 어린 文物의 保存에 남달리 힘쓰려는 氣風이 忠北

의特徵의 하나라고도 생각되는 것이다.

却說하여 여기서는 이들 文物 가운데 國家指定된 石造建築과 木造建築을 考察하여 그들이 갖는 構造樣式과 他地域의 그것과의 差異를 찾아 忠北의 古建築의 特徵을 抽出하고 아울러 住宅建築의 平面構成 가운데 가장 地域的 特徵을 잘 나타내는 안채 平面을 考察하여 그 特徵을 抽出해 보도록 하겠다.

(11)

忠北道 內의 石造建築 가운데 石塔은 國家 및 地方의 文化財로 指定된 것이 二一基에 達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統一新羅時代에서 高麗時代에 걸쳐서 建立된 石塔들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雄壯하고 峻嚴한 모습을 간직한 塔은 俗稱 中央塔이라고 불리는 國寶 第六號 中原塔坪里 七層石塔일 것이다. 이 塔은 中原郡 可金面 塔坪里 一一番地의 畝지한 耕作地化된 들판 한 가운데 좀 높은 土壇이 있어 그 위에서 있으며 낮은 下層基壇과 比較的 높은 上層基壇으로 된 二重基壇을 갖춘 新羅樣式 石塔 가운데서는 稀貴한 七層石塔이다. 基壇石 一部에 若干의 混亂이 있으나, 下層基壇의 各面에 四個의 撐柱를 갖고 있으며 上層基壇에 比하여 높이가 比較的 넓다. 塔身은 다른 三層石塔들에 比해서는 넓이 높으로 製作된 모든 塔身을 갖추었다. 屋蓋받침은 初層에서 七層까지 모두 五段의 層級을 가졌고 屋蓋石은 比較的 두텁고 작다. 이와 같이 二層以上の 塔身의 遞減이 적고 屋蓋石이 두텁기 때문에 後說하는 重複된 露盤과 아울러 이 塔에 高峻한 느낌을 强하게 만들었다. 相輪部는 二重으로 重複되어 他에 그 예를 보지 못하는 稀貴한 露盤과 그 위의 伏鉢, 仰花만이 남아 있다. 이 塔은 新羅樣式의 石塔이 確立된 初期의 人樣相을 基壇 撐柱나 屋蓋받침의 層級에서 찾을 수 있어 八世紀에 建立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塔이 갖는 特徵으로는 우선 新羅樣式의 石塔은 보통 三層石塔으로 造成되는 경우가 많은데 七層石塔이란 稀貴한 高層石塔으로 造成된 點이며 上, 下層 基壇 各面의 撐柱가 初期樣式의 石塔인 경우 下層基壇이 셋, 上層基壇에 둘이 있는데 比하여 모두 네個라는 점과 一般的인 石塔에서는 露盤이 하나만 놓이게 되는 것이나 二重으로 重複된 露盤이 놓인 點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特徵은 七層塔이란 高峻한 形態의 塔身에 調和시키기 위하여 比較的 넓고 높은 基壇을 갖게 되었고 이 넓은 基壇을 調和있게 構成하기 위하여 各面의 撐柱를 四個씩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二重으로 重複된 露盤 역시 層數가 많은 高峻한 塔身에 調和시키기 위한 智慧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造形에 대한 調和感覺과 處理方法은 이 塔과 같은 類形의 石塔이 다른 地域에서 찾아보지 못한다는 점으로 보아 이 地域의 造形的 特性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寶物로 指定된 石塔은 모두 八基이다. 이들 가운데 典型的인 新羅樣式의 石塔은 寶物 第四〇五號인 丹陽香山里 三層石塔과 寶物 第五三三號인 寧國寺 三層石塔이다.

香山里 石塔은 丹陽郡 佳谷面 香山里 四〇一番地인 山谷 속의 耕作地 가운데에 섰다. 이 塔은 一九三五年頃에 塔內에 莊嚴 內藏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舍利莊嚴具를 竊取하기 위한 作亂으로 倒壞되었으나 그 후 洞民들에 의하여 再建된 것으로 傳해진다. 塔 基壇은 三層의 塔身에 比해 좀 큰 二重基壇이며 基壇을 構成하는 石材를 역시 굵고 큼직하며 특히 下層基壇에서 그것이 더욱 두드러진다. 下層基壇은 地表面에 上面을 맞추어 깔린 基礎板石 위에 놓였다. 地臺石은 아무런 彫飾 없는 투박한 長大石으로 되었고 그 위에 귀에 역시 굵직하고 짧은 隅柱를 세우고 各面 中央에 한 개의 撐柱를 配置하며 面石을 끼웠다. 甲石은 上面이 外部로 若干 傾斜했으며 매우 두텁고 中央部에는 上層基壇의 隅柱, 撐柱 및 面石을 받치는 斷面이 弧形과 角形으로 된 二段의 돌덩이를 갖는 괴임을 만들었다. 上層基壇은 比較的 높은 隅柱와 各面 한 개의 撐柱를

갖는 面石을 세우고 그 위에 넓은 甲石을 올렸다. 甲石의 外端 下角에 한 段의 碇임이 있으며 上面은 역시 좀더 強하게 外部로 傾斜하여 雨水處理에 便하게 하였고 따라서 甲石 上面 네 귀에서는 中心을 向한 隅棟形의 線이 뚜렷하다. 甲石 中央에는 역시 二段의 斷面이 弧形과 角形으로 된 돌덩이 있어 初層塔身을 받치는 碇임이 있다. 이와 같은 二重基壇은 下層基壇의 투박함과 上層基壇의 治石感이 매우 달라 마치 下層基壇과 上層基壇은 別個의 塔의 것들을 합쳐 再建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下層基壇 上面의 碇임이 上層基壇과 꼭 맞고 그 碇임과 上層基壇 上面의 塔身 碇임의 形式으로 보아 이 基壇이 元來의 모습 그대로는 것은 分明한 것이다. 初層塔身은 比較的 굵은 隅柱를 刻出한 一石으로 되었고 南壁面 中央에는 二重으로 方框을 彫刻하여 그 속에 門扉를 나타내는 戶形을 模刻하였다. 二層과 三層의 塔身 역시 一石으로 되었고 매우 낮게 만들어 全體의 均衡을 圖謀하고 隅柱를 刻出한 것以外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屋蓋받침도 모두 一石으로 만들어졌고 各層이 四段의 層級을 가져 時期가 내러움을 나타내었다. 屋蓋石은 下段面이 水平이며 上端 처마는 부드러운 曲을 갖고 隅角部分에서 가볍게 反轉하여 新羅石塔의 屋蓋形態의 典型을 나타내며 처마 끝은 比較的 짧게 나와 全體의 塔 모습을 堅實하게 보이도록 했다. 相輪部는 上面部에 한 단의 突出한 碇임이 있는 立方體로 된 通例의 露盤 위에 伏鉢에 該當하는 扁球形에 두 줄의 橫帶를 돌린 球體와 그 위에 놓인 八葉의 仰花와 한 개의 寶珠가 남아 있다.

이 香山里石塔이 갖는 特徵으로는 典型的인 新羅樣式의 後期에 속하는 三層石塔으로 두드러진 것은 없으나 塔身部에 比較的 높고 넓은 基壇과 下層基壇을 構成하는 石材가 투박하리 만큼 굵직한 점들을 수 있을 것 같다.

寧國寺石塔은 永同郡 陽山面 樓橋里 山一三八—一番地에 있는 寧國寺 境內에 있다. 塔은 二重基壇 위에 선 三層石塔이며 基壇部가 눈에 띄우게 높고 넓다. 下層基壇에는 各面에 세 개의 眼象이 彫刻되었고 甲石은

두텁고 그 中央部에는 上層基壇을 받치는 斷面 弧形의 한 단의 돌덩이 있다. 上層基壇에는 隅柱가 없고 各面에 굵직한 한 개의 眼象을 彫刻했고 그 위에 甲石을 올렸으나 基壇 壁部엔 眼象을 彫刻한 一石으로 된 部材를 거꾸로 놓았기 때문에 좀 不安한 感을 준다. 上層基壇 甲石은 外端 下角에 깊게 한 단의 碇임을 만들었고 上面의 外傾이 매우 적어 거의 水平으로 보이며 中央部에는 二段의 돌덩이로 된 塔身 碇임이 있다. 初層塔身 역시 倒置되어 前面 壁體 中央에 刻出된 門扉와 자물쇠가 거꾸로 놓여 不安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初層에서 三層까지의 各塔身은 모두 一石으로 되었으며 좀 가늘게 만들어진 反面 比較的 넓고 큰 各層 屋蓋받침과 屋蓋가 塔 全體의 均衡을 輕快하고 優雅하게 만들었다. 屋蓋받침은 各層이 四段의 層級으로 되었고 屋蓋는 좀 얇고 처마는 길게 뻗었다. 相輪部는 露盤이 없고 큰 寶珠가 얇은 臺石 위에 놓여 있는데 이 形態로서 完形인 것 같다.

이 石塔의 特徵이 역시 塔身部에 比較하여 유난히 크고 넓은 基壇을 갖는 點은 앞에서 말한 香山里石塔과 相通되나 比較的 작고 가늘은 塔身에 比較하여 넓고 얇은 屋蓋部에 의하여 塔 全體가 풍기는 느낌이 前者의 堅實하고 強直함에 대하여 柔軟하고 輕快하게 보이는 點이 다르다. 이러한 느낌이 相輪部의 略化된 形式이나 基壇部의 眼象과 屋蓋받침의 四段 層級과 아울러 新羅末期의 典型樣式을 한 三層石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이 塔의 特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寶物로 指定된 五層石塔은 寶物 第九五號 中原彌勒里五層石塔과 寶物 第五一號 清原柱山里五層石塔이다.

彌勒里石塔은 中原郡 上莒面 彌勒里 五八番地에 있는 寶物 第九六號 中原彌勒里石佛立像을 本尊으로 하는 天障部와 前面 木造建築部分이 破壞 欠失된 石窟寺院 앞에 있고 石佛立像과 아울러 高麗時代에 만들어진 것이다. 塔은 基壇 下部가 埋沒되어 그 構造를 正確하게는 알 수 없으나 매우 略化된 二重基壇이며 下層基壇部가 埋沒되었다. 上層基壇은 壁部를 一石으로 만들었으며 隅柱나 撐柱가 없다. 甲石은 上面의 傾斜가 심

하며 外緣 下角部에 한 단의 꺾임이 있고 中央部에는 略화된 二段의 塔身과 削임이 彫出되었다. 이 基壇은 初層塔身에 比하여 매우 좁은 基壇으로 마치 그 위의 初層塔身 밑의 또 한 層의 塔身 같은 느낌마저 준다. 初層塔身은 一石으로 만들어졌고 屋身幅에 比하여 가늘은 隅柱를 刻出하였고 二層에서 五層까지의 塔身은 높이는 비슷하나 幅의 遞減은 매우 크다. 屋蓋받침과 屋蓋石은 三層 以上은 一石으로 彫出하였고 初層과 二層은 屋蓋받침과 屋蓋를 半만 彫出한 石材 두개를 나란히 놓았다. 이 屋蓋部는 塔身에 比하여 매우 좁으며 특히 屋蓋 傾斜가 크고 처마 끝이 짧고 各層 四段의 層級으로 된 屋蓋받침도 투박하다. 相輪部는 마치 또 한 層의 塔身과 屋蓋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露盤을 올렸고 그 위에 半球形의 伏鉢이 있으며 그 속에 鐵製擦柱가 남아 있다.

이 塔의 特徵은 高麗時代 多層塔에서 간혹 볼 수 있는 塔身의 幅에 比하여 작고 두터운 屋蓋部에 의하여 마치 塔塔의 外形과 비슷한 感覺을 주는 것과 基本的으로는 新羅樣式의 石塔에 속하나 그 退化形式이 가장 심한 石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點이다.

桂山里石塔은 淸原郡 加德面 桂山里 四八番地에 있으며 單層基壇 위에 선 五層石塔이다. 基壇 地台石은 地表에 上面을 맞춘 基礎板石 위에 놓였으며 下層基壇의 退化形式을 나타낸 지름 넓고 그 中央에 基壇面石部를 받치는 斷面이 弧形과 角形의 二段으로 된 꺾임이 刻出되었다. 基壇面石部는 네개의 두터운 板石으로 짜였으며 隅柱나 撐柱는 刻出하지 않았고 그 위에는 外緣 下角部에 한 단의 꺾임이 있는 투박하고 上面이 거의 水面으로 된 甲石을 올렸다. 塔身은 初層만이 四石으로만 들어졌고 二層 以上은 一石으로 되었다. 모두 隅柱를 刻出치 않은 立方體形이며 面幅에 比하여 좀 낮은 初層과 매우 낮으나 서로의 높이가 거의 같은 二層 以上의 塔身으로 되었다. 그러나 二層 以上의 塔身도 높이는 거의 같으나 그 面幅은 위로 가면서 크게 좁아진다. 屋蓋部는 初層과 二層은 두개의 石材를 並置하여 屋蓋받침과 屋蓋를 彫出하였으나 三層 以上은 一石에서 彫出하고 있다. 屋蓋받침은 初, 二層은 五段, 三,

四層은 四段, 五層이 三段의 層級을 가졌고 屋蓋는 처마가 짧고 傾斜가 매우 크다. 相輪部는 完全히 欠失되어 그 樣相을 알 수 없다. 이 石塔의 特徵으로는 앞에서 말한 彌勒里石塔과 相通되는 點이 많으나, 二層 以上의 遞減이 더 크기 때문에 全體 모습이 鈍重하리 만큼 安定된 느낌을 주고 있다.

寶物 第五三五號 寧國寺望塔峰三層石塔과 寶物 第四五九號 堤川長樂里七層模磚石塔 및 寶物 第九四號 獅子頻迅寺石塔은 모두 典型石塔에 包含할 수 있는 石塔들이다.

望塔峰石塔은 永同郡 陽山面 樓橋里 山一三九—一番地에 있으며 寧國寺境內에 속하는 巨大한 岩山 頂上에 있다. 塔은 岩山 頂上의 岩盤을 거칠게 二段으로 刻出하여 基壇으로 하여 그 위에 섰으며 塔身 및 屋蓋받침과 屋蓋를 各各 一石으로 刻出한 三層石塔이다. 二段으로 刻出된 基壇部의 上段 各面에는 거칠게 隅柱와 中央에 한 개의 撐柱를 나타내고 左右 區間에는 眼象 一具씩을 陰刻하였다. 初層塔身은 下端에 塔身과 削임을 나타내는 좀 두터운 臺를 刻出하고 그 위에 上狹下潤의 塔身을 만들었으며 隅柱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二, 三層塔身은 比較的 높으며 서로 身幅을 強하게 縮小시켰으며 역시 隅柱를 刻出하고 있다. 屋蓋받침은 初層이 五段, 二, 三層이 四段의 層級을 갖는 逆階段式이며 屋蓋는 比較的 얇고 처마 끝이 若干 길다. 相輪部는 寶珠 한개를 남기고 欠失되었으나 三層屋蓋 頂上의 모습으로 보아 원래는 露盤이 있었던 것 같고 따라서 伏鉢, 仰花, 寶輪 등도 具備했던 것 같다.

이 塔의 特徵은 岩山 頂上의 岩盤을 刻出하여 基壇을 삼아 釋伽如來가 靈鷲山 山頂에서 說法하는 모습을 象徵하는 點과 退化된 新羅樣式의 石塔이면서 比較의 가늘고 높고 또 上狹下潤의 塔身과 얇고 넓은 屋蓋로 因하여 全體 感覺에 百濟的인 雰圍氣를 풍기는 點이라고 할 수 있다. 塔은 高麗中期에 建立된 것으로 생각된다.

長樂里石塔은 堤川市 長樂洞 六五番地 耕作地 속에 있으며 粘板岩石材를 方塼形으로 精巧하게 採石하여 쌓아 올린 典型的인 模磚石塔이다.

塔은 自然石으로 된 單層基壇 위에 섰으며 初層塔身은 隅柱를 높이 一、三七m、幅 二一cm의 花崗岩 石材로 만든 一般의인 塔에서는 보기 드문 形式으로 되었다. 初層塔身 前後面、中央에는 역시 花崗岩으로 門扉를 위한 文框이 있었는데 前面의 것은 欠失되었다. 二層 以上の塔身은 매우 얇게 만들어졌고 屋蓋받침과 屋蓋는 通常의 塔塔과 같이 層級을 이루었으며 屋蓋받침은 九段에서 七段의 層級을 갖고 屋蓋는 一五段 內외의 層級을 가졌다. 相輪部는 거의 欠失되었으며 七層屋蓋 頂上에 一邊 七〇cm의 얇은 露盤만이 남았다. 塔 全面에는 石灰로 塗裝한 痕跡이 있는 것으로 보아 原來는 塔 全面에 石灰化粧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塔의 築造年代는 確實치 않으나 新羅末 高麗初의 어느 時期에 建立된 것으로 보인다.

이 塔의 特徵은 우리나라에 그 類例가 많지 않은 典型的인 模塼石塔이며 慶州 芬皇寺石塔과의 關連을 생각하게 하는 點과 塼塔은 慶北 安東을 中心으로 그 地域에 集中되고 있으나 유독 이 곳에 비록 模塼石塔이기는 하나 築造方法이나 形態가 塼塔과 꼭 같은 塔이 있다는 點이다. 獅子頻迅寺石塔은 堤原郡 寒水面 松界里 一〇〇二番地 獅子頻迅寺址로 傳해진 절터에 있으며 建立時代는 基壇部에 刻字된 造塔銘에 의하여 高麗 顯宗 一三年(一〇二二年)임이 確認되고 있다.

이 塔은 新羅樣式의 異型石塔에 속하는 石塔으로 그 構成은 二重基壇 위에선 九層塔이나 現在는 塔은 五層塔身까지만 남았다. 下層基壇은 下台石과 竿石 및 上台石으로 構成되었으며 下台石은 地台石、竿石은 面石部 그리고 上台石은 甲石을 나타낸다. 下台石은 두터운 方形石材로 上部에 넓은 목의 副椽을 線刻했고, 그 밑 各面에는 三具의 眼象을 彫刻했다. 眼象 下線은 中心에서 接觸 反轉하여 큼직한 花文을 이루어 高麗時代에 흔히 보는 眼象의 特徵을 나타내었다. 下台石 上面 中央에는 낮은 괴임을 彫出하여 그 위에 一石으로 된 竿石을 받친다. 竿石 역시 두터운 方形台石이며 네 귀에 隅柱를 刻出하였고 그 南面에는 一〇行 七九字의 楷書로 된 造塔銘이 陰刻되었다. 上台石은 역시 比較的 두터

운 方形板石이며 下端은 內反한 曲面으로 處理되었다. 上台石 上面에는 中央에 毘盧舍那坐像을 安置하고 四隅에 各各 外向한 蹲居한 모습의 獅子像을 配置하여 上層基壇 身部를 構成하고 있으며 이들 石像들이 甲石에 該當되는 板石을 支撐한다. 이 板石은 좁았던 方形板石이며 下端은 역시 內反된 傾斜面으로 處理하였고 上面에는 中央部에 一六辨의 蓮花文을 浮彫하여 塔身괴임을 삼았다. 塔身部는 塔身 및 屋蓋部와 屋蓋로 된 屋蓋部가 各 一石으로 되었고 初層塔身은 높으나 二層 以上은 매우 얇으며 上部에의 높이의 遞減은 적고 幅의 遞減은 比較的 크다. 各層塔身에는 隅柱만이 刻出되었고 다른 彫飾은 없다. 屋蓋받침은 三段의 層級을 가졌고 屋蓋는 넓고 처마 길이가 길고 反轉이 크다.

이 塔의 特徵으로는 新羅時代 建立인 華嚴寺 四獅三層石塔과 脈을 같이 하는 造形이나 마 이와 같은 變形基壇에 선 九層石塔의 唯一한 遺例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된 石塔에는 第三號 龍岩寺 雙石塔、第四號 神勒寺 三層石塔、第八號 倉洞 五層石塔、第九號 陰城 五層模塼石塔、第二五號 塔洞 五層石塔、第二九號 鳳鶴寺 址 五層石塔、第三三號 彌勒里 三層石塔、第六五號 菩薩寺 五層石塔、第六九號 丹湖寺 三層石塔、第一一八號 報恩猿汀里 三層石塔、第一二〇號 沃川斗岩里 三層石塔 및 第一二九號 陰城邑內里 三層石塔등이 있고 그들도 各各 그 造形과 架構技法에 興味로운 要素들이 적지 않다. 특히 沃川郡 沃川邑 三靑里 山五一二 龍岩寺 境內에 있는 雙石塔은 매우 略化된 二重基壇과 屋蓋받침을 갖고 非常하게 가늘고 높은 初層塔身과 역시 略化된 完全한 相輪部등 個個의 三層石塔으로도 造形의 妙를 느끼게 하나 雙塔이 서로 調和하여 淸淨한 雰圍氣를 한층 돋근다. 中原郡 可金面 倉洞 二四二番地에 있는 倉洞石塔은 新羅의 典型樣式을 固守하면서 두텁고 작은 屋蓋石등이 龍岩寺 雙塔과는 또 다른 하나의 高麗時代에서의 退化樣式의 典型을 나타낸다. 陰城郡 陰城邑 文化洞 二〇八番地에 移建된 模塼塔은 塔身은 石材로 一般石塔과 같게 만들고 屋蓋 上面을 階段式으로 刻出한 所謂 模塼塔으로 呼

稱되는 우리나라에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類形의 石塔이다. 堤原郡 德山面 月岳里 八〇三番地 森林 속에 있는 神勒寺石塔은 그 建立年代는 羅末麗初의 建立으로 推定되고 있으나 아직 新羅의 雰圍氣를 많이 풍기며 比較的 높고 넓은 基壇과 一部 欠失된 部分이 있으나 잘 남아 있는 相輪部의 모습등 앞에서 말한 寧國寺石塔과 相通되는 느낌의 佳塔이다. 이들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된 都合 一三基의 石塔 가운데 五基는 五層石塔이다. 우리나라 新羅樣式의 石塔에는 三層塔이 가장 많으며 따라서 典型的인 新羅石塔은 佛國寺三層石塔(俗稱 釋迦塔)이 代表가 되는 三層石塔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忠北道內에 所在하는 國家 및 地方指定文化財인 二二基의 石塔 가운데 一〇基가 五基 以上の 多層塔이라는 것은 分明히 이 地域의 뚜렷한 特性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特性을 갖게 된 原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指定石造建築目錄(忠北道)

國寶

號數	名	稱	數量所有者	所在地	備考
五	法住寺雙獅石燈		一基 法住寺	報恩郡內俗離面舍乃里 二〇九	
六	中原塔坪里七層石塔		一基 國有	中原郡可金面塔平里 一一	
四一	龍頭寺址 鐵幢竿		一基 "	清州市南門路二街四八·九	
一九七	青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		一基 "	中原郡蘇臺面五良洞山 三二	

寶物

號數	名	稱	數量所有者	所在地	備考
一五	法住寺四天王石灯		一基 法住寺	報恩郡內俗離面舍乃里 二〇九	
九四	獅子頻迅寺 石塔		一基 國有	堤原郡寒水面松界里 一〇〇·二	

號數	名	稱	數量所有者	所在地	備考
九五	槐山彌勒里五層石塔		一基 "	中原郡上毛面彌勒里五六	
四〇五	丹陽香山里三層石塔		一基 "	丹陽郡桂谷面香山里 四〇一	
四五九	堤川長樂里七層模磚石塔		一基 "	堤川市長樂洞六五	
五一	清原桂山里五層石塔		一基 "	清原郡加德面桂山里四八	
五三二	寧國寺浮屠		一基 寧國寺	永同郡陽山面樓橋里山 三八의 一	
五三三	三層石塔		一基 "	"	
五三五	望塔峰三層石塔		一基 "	"	
六五六	青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前獅子石灯		一基 國有	中原郡蘇臺面五良洞山 三二	

地方有形文化財

號數	名	稱	數量所有者	所在地	備考
三	龍岩寺雙石塔		二基 龍岩寺	沃川郡沃川邑三青里山 五一·二	
四	神勒寺三層石塔		一基 神勒寺	堤原郡德山面月岳里 八〇三·五	
八	創洞五層石塔		一基 私 有	中原郡可金面創洞里 二四二	
九	陰城五層模磚石塔		一基 國有	陰城郡陰城邑內里 二〇八	
一一	福泉庵秀庵和尚塔		一基 法住寺	報恩郡內俗離面舍乃里 山一一	
一三	" 學祖燈谷和尚塔		一基 "	"	
一六	法住寺世尊舍利塔		一基 "	"	
一九	彌勒里石燈		一基 國有	中原郡上毛面彌勒里五六	
二五	塔洞五層石塔		一基 私 有	清州市塔洞二五一	
二七	安心寺世尊舍利塔		一基 私 有	清原郡南二面寺洞里 二七一	
二九	鳳鶴寺址五層石塔		一基 普光寺	槐山郡沙梨面沙阜里山一	
三三	彌勒里三層石塔		一基 國有	中原郡上毛面彌勒里五八	
六五	菩薩寺五層石塔		一基 菩薩寺	清州市龍岩洞七	
六九	丹湖寺三層石塔		一基 丹湖寺	忠州市丹月洞四五五	
一一八	報恩猿汀里三層石塔		一基 國有	報恩郡馬老面猿汀里	

一一〇	沃川斗岩里 三層石塔	一基	國有	沃川郡伊院面斗岩里
一一二	永同深源里 浮屠	一基	〃	永同郡永同邑深源里
一一七	槐山覺淵寺 浮屠	一基	覺淵寺	槐山郡長延面臺城里
一一九	陰城邑內里 三層石塔	一基	國有	陰城郡陰城邑內里

(三)

木造建築 가운데 國家指定文化財는 國寶 第五五號 法住寺捌相殿과 寶物 第五二八號 淸風寒碧樓 및 寶物 第六六四號 安心寺大雄殿의 三棟은 이다. 그러나 地方有形文化財로는 寺刹建物, 官衙建物, 學校建物 및 古家屋 등 여러 種類의 木造建物이 六三件이 있어 保存 保護되고 있다.

捌相殿은 俗離山 法住寺 境內 中心에 位置하는 우리나라 唯一의 木造 五層塔으로서 內外에 널리 알려진 建物이다. 現存하는 五層木塔은 朝鮮 仁祖四年(一六二六年)에 重建된 것이며 一九六八年에 完全解體 補修된 바 있다. 塔은 初層과 二層이 方五間, 三層과 四層이 方三間, 五層은 方一間의 平面으로 된 柱心包집으로 四方에 石階段을 具備한 精巧하게 治石된 石材로 外裝된 單層基壇 위에 있다. 建物內부의 架構는 正方形으로 된 初層塔身 中央 基壇 上面에 心礎를 놓고 擦柱를 세워 擦柱를 中心하여 네 귀에 隅高柱를 세워 이것이 三層塔身의 隅柱가 되도록 하였다. 이 隅高柱 下部 約三分의 一의 位置에 榑梁을 걸고 그 끝에 初層邊柱를 세우고 이 榑梁 中央部 위에 二層邊柱를 세우고 있다. 또 隅高柱 위에는 擦柱 周圍 四方에 세운 四天柱(高柱)에 連結된 繫梁이 걸려서 그 繫梁 위에 四層邊柱를 세우고 五層邊柱는 四天柱 上端과 四層邊柱 上端을 連結한 繫梁 위 四天柱에 가까운 位置에 세웠다. 擦柱와 四天柱는 上·下 두 곳에 中枋을 끼워 連結하였다. 이와 같은 架構方法은 우리나라 高層法堂建物의 架構方法을 翻案하여 五層의 木造建築을 만든 것이다. 建物의 樣式은 朝鮮時代 中期의 柱心包樣式 即 柱心包樣式이 高麗中期에 導入되어 定着한 후, 柱斗나 소로에 있던 椽받침도 없어서

고 짐차 끝의 傾斜도 매우 커진 柱心包樣式으로는 末期의 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五層에는 柱心包樣式的 傳統을 벗어나 柱間中央 上部에도 昌枋 위에 一具의 斗拱을 架構하여 建物 全體의 外觀을 調節 整備하였다. 五層 屋蓋는 木塔建物로 當然한 네모지붕이며 鐵製露盤과 相輪들이 完存한다. 斗拱의 出目은 初層에서 四層까지는 二出目이며 五層만은 三出目이었다. 이것 역시 建物 外觀을 調和시키기 위한 한 方法이었을 것이다. 처마는 五層木塔이란 複雜한 架構 때문인지 各層 모두 長椽만으로 된 홑 처마로 單椽함을 닮았고 上部에의 遞減率을 크게 하여 全體의 安全感을 얻었다.

이 五層木塔의 前身인 아마도 新羅時代에 創建되어 壬辰倭亂에서 燒失된 것으로 생각되는 創建木塔은 위에서 말한 架構方式이나 지금 볼 수 있는 捌相殿의 外觀과는 달랐을 것이다. 아마도 遞減率이 적은 매우 高峻한 느낌을 주는 木塔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元來는 三層木塔이었으나 그 寺刹의 大雄殿이 燒失된 뒤 重建하지 못하여 木塔의 네모지붕을 팔각지붕으로 改造하여 大雄殿으로 轉用하고 있는 雙峰寺 大雄殿이나 日本의 奈良에 있는 法薩寺 五層木塔을 비롯한 여러 五層木塔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一九六八年에 實施된 解體 修理時에 創建時의 木塔의 邊柱를 세웠던 礎石들이 지금의 木塔 邊柱보다 안쪽에 配置되고 있음이 確認된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捌相殿과 雙峰寺 大雄殿—原來 三層木塔이었음—이나 日本에 있는 古典의 인 形態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 五層木塔들과의 사이에 나타난 形態上의 差異에 대하여 그 原因을 筆者는 「傳統的인 木造塔婆의 架構技法을 잊어버리고 重層法堂建物이나 三層法堂建物의 架構技法을 援用하여 五層木造建物로 만들었기 때문」에 捌相殿과 같이 遞減이 유난히 큰 木造五層木塔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는 見解를 發表한 바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 있는 石塔들의 比較的 크고 넓은 基壇을 採用하여 매우 安全感이 큰 모습을 얻으려는 努力의 痕跡을 본다면 遞減率이 크고 좀 鈍重한 느낌을 풍길 만큼 安全感이 큰 木塔을

만들기 위하여 意識的으로 傳統的인 木造塔婆의 架構技法을 採用하지 않고 遞減率이 크고 安全感이 강한 重層이나 三層의 法堂建物の 架構技法을 採用하여 捌相殿을 建立하였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寒碧樓는 堤原郡 淸風面 邑里 二〇三番地、面事務所 西南쪽에 있으며 元來는 淸風郡 客舍에 附屬된 樓閣으로 南漢江에 臨한 絕壁 위에 設다. 寒碧樓 創建은 高麗時代 忠肅王四年(一三二七年)에 縣僧 淸恭이 王師가 된 것을 계기로 淸風縣이 淸風郡으로 昇格하여 이를 記念하여 客舍 東쪽에 建立한 것이었다. 現存하는 樓閣은 朝鮮 仁祖一二年(一六三四年)에 重創한 것이 一九七二年에 大洪水로 因하여 倒壞된 것을 一九七五年에 元來 모습대로 復元한 것이다.

樓閣은 自然石으로 된 낮은 基壇 위에 세워진 正面四間、側面三間의 팔각지붕으로 된 柱心包系樣式의 집이다. 樓閣의 右側에는 楹一間、長三間の 맞배지붕으로 된 翼廊이 있어 이 翼廊이 階段式으로 마루가 되어 樓閣에 오르 내리게 하였다. 樓閣은 比較的 寬고 높은 層下柱 위에 깔린 마루 周圍에 鷄子欄干을 돌렸고 기둥 위에 걸린 보머리 끝에는 鳳凰머리를 別彫하였고 無舌과 仰舌을 길게 內、外反시켜 그 사이에 蓮花를 넣었다. 斗拱과 斗拱 사이에는 昌枋 위에 花盤을 끼워 柱心道里 밑의 長舌를 支撐하였으며 처마는 걸처마로 桴椽의 反轉이 크다. 樓閣에는 宋尤庵을 비롯하여 朴弼文、金壽增 등과 何崙 등의 府使와 朝鮮代 名士들의 記文이 있고 金正喜의 「淸風寒碧樓」란 額字가 있다. 이 樓閣은 朝鮮朝 後期의 地方官衙의 한 樓閣建物の 代表的인 것이나 建物自體의 아름다움이나 架構物의 技巧와 優秀性 보다 오히려 이들 名士들의 記文이나 筆蹟과 그 記文들의 內容에 의하여 樓閣에 대한 緣起、由來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더욱 意義가 큰 것이다. 그와 아울러 이와 같이 一世에 이름 높았거나 權勢가 대단했던 名士나 名筆의 筆蹟이나 記文이 傳해지고 있는 것은 樓閣의 아름다움에도 그 原因이 있겠으나 그와 아울러 淸風이 옛부터의 名邑이며 景觀이 아름다웠던 데에 더 큰 原

인이 있을 것 같다. 이 寒碧樓는 忠州 城建設에 의하여 水沒되게 되었기에 一九八三年에 淸風面 勿台里에 移建하였다.

安心寺는 淸原郡 南二面 寺洞里 二二七番地에 있으며 이 절에 傳하는 「安心寺古蹟年代表」에 의하면 安心寺는 新羅 惠恭王一二年(七七五年)에 眞表律師가 創建하였고 高麗 忠肅王一二年(一三二五年)에 元明國師가 重建하였으며 그 뒤에 朝鮮 仁祖四年(一六二六)에 松庵大師가 三創한 것으로 되었고 大雄殿에 매달린 望瓦에는 康熙一一年(一六七二年)의 記銘이 있다. 따라서 現 大雄殿은 仁祖四年에 建立되었고 康熙一一年에 重修한 것으로 생각된다. 大雄殿은 正面三間、側面二間の 多包집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斗拱 形態는 牛舌이 比較的 寬고 強直하며 建立年代에 比하여 좀 古格을 지닌 듯하다.

이 建物の 特徵은 맞배지붕으로 된 建物인데도 建物 側面에도 기둥머리에 架構된 昌枋 위에 平枋을 돌리고 그 위에 斗拱을 配置한 點이다. 보통 建物の 지붕이 맞배지붕인 경우 柱心包집이던 多包집이던 간에 建物の 側面에는 斗拱이 配置되지 않고 土壁으로 막게 되고 지붕 側面에는 朴工板을 달거나 朴工板에다 防風板을 달아 그 部分을 가리게 한다. 따라서 安心寺 大雄殿과 같이 맞배지붕으로 된 建物 側面에 斗拱을 配置한 建物は 매우 稀貴한 것이다. 그런데 이 建物에 대하여 實施된 最近의 補修工事에서 나타난 現象은 이 建物の 元來의 모습은 側面이 한 칸 더 있어 三間이었던 것을 어떤 事情에 의하여 뒤에 一部를 切斷除去하여 側面을 縮小시킨 것 같은 痕跡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大雄殿을 縮小시키기 以前의 지붕은 팔각지붕이나 우진각 또는 네모지붕이었을 可能性이 있게 되었다. 만일 縮小되기 전의 建物の 지붕이 팔각지붕이나 우진각 또는 네모지붕이라면 建物の 側面 기둥 上部에 斗拱이 配置되는 것은 當然한 形式이며 아무런 奇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大雄殿은 建物 側面을 縮小시킬 때 側面의 斗拱을 그대로 남겨놓고 지붕만 맞배지붕으로 改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리 改造 變形되어서 지금과 같은 稀貴한 架構樣式을 갖는 建物이 된 것

이라 하여도 벌써 이 大雄殿 東南쪽 좀 떨어진 位置에 大雄殿과 거의 같은 規模 樣式을 갖는 새로운 法堂(靈山殿)이 近世(約八〇年前)에 建立되었고 이 새 建物 역시 맞배지붕을 갖는 建物이면서 그 側面 柱上部에도 斗栱을 配置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로 보아 비록 이 大雄殿이 元來는 극히 平凡한 建築樣式으로 된 建物이었으며 後世의 改造에 따라 지금과 같은 特色 있는 오히려 變態의인 建物로서 建築史的으로 重視되고 美術史的으로 높이 評價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이 미하나의 標本이 되어 改造된 모습과 꼭 같은 構造 樣式의 새로운 建物이 建立되었다는 것은 重大한 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建物의 構造 樣式이 變化하는 過程을 立證하는 資料가 되는 것이며 또 改造된 架構 樣式이 한 完成된 架構 樣式으로 定着되는 過程을 現物로서 證明하는 資料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 安心寺 大雄殿의 重要性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 大雄殿과 같은 構造 樣式의 建物이 그다지 넓게 普及되지 않았기 때문에 結果적으로서는 한 棟의 新樣式 創造의 試圖로서 끝난 感이 있기는 하나 역시 이와 같은 創造的 建築活動의 움직임 수 없는 物證으로서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活動이 이 地域에서 試圖되었다는 點에 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된 木造建築 가운데 法堂建築이나 官衙建築 등의 權威建築에는 第一號 法住寺 圓通寶殿을 비롯하여 第四六號 法住寺 四天王門, 第五六號 菩薩寺 極樂寶殿, 第五八號 月木里寺 大雄殿, 第六一號 寧國寺 大雄殿, 第一一二號 安心寺 毘盧殿, 第一一七號 法住寺 大雄殿, 第一二五號 覺淵寺 毘盧殿, 第一二六號 覺淵寺 大雄殿, 第一三二號 神勒寺 極樂殿 등의 寺刹建物和 第一五號 清寧閣, 第二〇號 鍾南樓, 第二二號 駕鶴樓, 第三四號 清風錦屏軒, 第三五號 清風八詠樓 第四九號 文山館 등의 官衙建물이 있다. 그 밖에 많은 鄉校建物 名土에 의한 亭閣 建物 등이 指定되었다. 寺刹建物은 대부분이 多包집 또는 柱心包집이며 官衙建物의 대부분은 翼拱집이다. 그러나 이들 建物の 樣式이나 架構技

法은 他地域의 朝鮮時代後期의 類似한 建物에 比하여 特別히 示摘할 만한 特色을 찾아내기 어렵다. 다만 樓閣이나 亭子들이 他地域에 比하여 많이 남아 있는 듯하며 그러한 사실은 忠北道 內一帶가 北漢江 流域에 따라 奇岩絶壁이 많고 景觀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 邪趣있는 建物들은 여러 곳에 建立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建物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指定木造建築目錄(忠北道)
國寶

號數	名稱	數量	所有者	所在地	備考
五五	法住寺 捌相殿	一棟	法住寺	報恩郡內俗離面舍乃里 二〇九	

號數	名稱	數量	所有者	所在地	備考
五二八	清風 寒碧樓	一棟	德周寺	堤原郡清風面邑里 二〇三一	
六六四	安心寺 大雄殿	一棟	安心寺	清原郡南二面寺洞里 二一七	

地方有形文化財

號數	名稱	數量	所有者	所在地	備考
一	法住寺 圓通寶殿	一棟	法住寺	報恩郡內俗離面舍乃里 二〇九	
一五	清寧閣	一棟	國有	清州市南門路二街九二	
二〇	錦南樓	一棟	國有	堤原郡清風面邑里二〇四	
二二	駕鶴樓	一棟	黃潤鄉校	永同郡黃潤面南城里 一四〇	
三四	清風 錦屏軒	一棟	國有	堤原郡清風面邑里 二〇三一	
三五	清風 八詠樓	一棟	國有	堤原郡清風面邑里 二〇三一	二八六

三六	紫陽影堂	二棟	私有	堤原郡鳳陽面公田里 四七五
三九	清州郷校	六棟	郷校財團	清州市大成洞五五
四〇	清安郷校	二棟	"	槐山郡清安面邑内里 二七九
四一	三世忠孝門	一棟	私有	清原郡北一面飛中里一〇
四二	二止堂	二棟	"	沃川郡郡北面二栢里三三
四三	先志堂 旌孝閣	二棟	"	永同郡深川面覺溪里 三八二
四六	法住寺 四天王門	一棟	法住寺	報恩郡内俗離面舍乃里 二〇九
四七	莘巷書院	一棟	私有	清州市龍亭洞一二〇
四八	象賢書院	一棟	"	報恩郡内俗離面書院里 三〇四
四九	文山館	一棟	國有	清京郡文義面米川里 一六六一二
五〇	槐山慶閑亭	一棟	私有	槐山郡槐山邑儉承里七七
五六	菩薩寺 極樂寶殿	一棟	菩薩寺	清州市龍岩洞七
五七	忠州郷校	六棟	私有	忠州市校峴洞一七五
五八	月木里寺 大雄殿	一棟	月木里寺	清原郡文義面文德里五
六〇	金守溫 不桃廟	一棟	私有	報恩郡報恩邑芝山洞山 四〇
六一	寧國寺 大雄殿	一棟	寧國寺	永同郡陽山面樓橋里 一三九一一
六二	清安司馬所	一棟	私有	槐山郡清安面邑内里 二七八
六四	清風郷校	五棟	"	堤原郡清風面校里六二
六六	清寧軒	一棟	中原郡	忠州市城内洞一五四一一
六七	製錦堂	一棟	"	"
七三	資風書堂	一棟	私有	永同郡楊江面斗坪里
七四	槐山城山里古家	三棟	"	槐山郡七星面城山里
八三	桃花里古家	一棟	"	堤原郡清風面桃花里
八四	清風黃石里古家	一棟	"	" 黃石里一六四
八五	清風後山里古家	二棟	"	" 後山里
八六	錦城中田里古家	三棟	"	堤原郡錦城面中田里 一四〇

八七	崔涵月古家	六棟	"	中原郡芝味面武陵里
八八	金世均判書古家	一棟	"	堤原郡寒水面北老里
八九	水山池谷里古家	三棟	"	堤原郡水山面池谷里
九〇	凝清閣	一棟	堤原郡	堤京郡清風邑邑里 二〇三一
九二	孤峰精舍	一棟	私有	報恩郡馬老面官基里 四五八一
九三	清安東軒(安民軒)	一棟	國有	槐山郡清安面邑内里
九四	文義郷校	一廊(四棟)	郷校財團	清原郡文義面米川里
九五	報恩	"(四棟)	"	報恩郡報恩面校士里 二八三
九六	懷仁	"(三棟)	"	" 懷仁面富寺里四〇五
九七	沃川	"(五棟)	"	沃川郡沃川邑校洞三二〇
九八	青山	"(四棟)	"	" 青山面校坪里
九九	永同	"(四棟)	"	永同郡永同邑芙蓉洞 三九二
一〇〇	黃澗	"(四棟)	"	" 黃澗面南城里
一〇一	鎮川	"(六棟)	"	鎮川郡鎮川邑校成里 四一六
一〇二	槐山	"(七棟)	"	槐山郡槐山邑西部里三三
一〇三	延豐	"(四棟)	"	" 延豐面杏村里五九〇
一〇四	陰城	"(五棟)	"	陰城郡陰城邑新皇里 一五六一一
一〇五	堤川	"(六棟)	"	堤川市校洞八七
一〇六	永春郷校	一廊(六棟)	郷校財團	丹陽郡永春面上里四六一
一〇七	丹陽	"(七棟)	"	" 丹陽邑上坊里 一三七一一
一〇八	墨井影堂	一棟	高靈坤氏	清原郡琅城面宮井里 四三〇
一〇九	清州東軒	"	國有	清州市北門路一街七五一
一一〇	清州望仙樓	"	私有	" 南門路一街一五四
一一一	北善亭	"	"	清原郡賢都面梅峯里
一一二	安心寺 昆盧殿	"	寺有	" 南二面寺洞
一一五	報恩東軒	"	國有	報恩郡報恩面三山里
一一六	懷仁東軒	"	寺有	" 懷仁面中央里
一一七	法住寺 大雄殿	"	寺有	報恩郡内俗離面舍乃里

一一五	覺淵寺 昆盧殿			二〇九
一一六	" 大雄殿			槐山郡長延面臺城里
一一一	神勒寺 極樂殿	"	"	"
一三三	清州塔洞 洋館	六棟	法人	提原郡德山面月岳里 清州市塔洞九四一—一七

(四)

忠北地域의 傳統的인 住宅 가운데 이미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 保護되고 있는 것이 槐山城山里古家를 비롯하여 挑花里古家, 清風童石里古家, 清風後山里古家, 錦城中田里古家, 崔涵月古家, 金世均判書古家 및 水山地谷里古家 등 八戶에 이른다. 이들 古家들은 忠州 建設에 따라 水沒되는 地域에 있던 많은 住宅 가운데 그 構造 形態 및 平面構成 등에 있어 이 地域 古住宅의 標本이 될 만한 要素들을 지닌 오래된 住宅이기 에 水沒에 의하여 撤去 廢棄되기 이전에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移建 保存하게 된 것으로 안다. 이들 指定 保存되지 않은 水沒地區內의 古住宅 등에도 상당히 古格을 지녔으며 住宅建築으로서 또는 住宅生活의 樣相을 살필 수 있는 民俗資料로서 그대로 廢棄하기에는 아까운 住宅들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指定되지 않았으나 相當한 學術的인 價値가 있는 古家屋은 守眞과 實測圖 및 鮮說文 등의 記錄을 製作하여 그 實態를 記錄으로 남기게 되었다.

주택건축은 역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을 反映한 한 뚜렷한 징표이며 건축기술의 변화발전 과정을 立證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水沒地區 內의 古家屋을 조사한 結果를 바탕으로 住宅構成 가운데 가장 지역적인 特性을 잘 나타내는 住宅의 平面構成과 그 分布狀態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통주택의 平面構成의 분류방법은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 그 분류 명칭에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筆者가 사

용하고 있는 形式分類와 그 명칭에 따라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원래 忠清道 지방에서 主流를 이루고 있는 주택평면은 中部型이다. 이 中部型은 京畿道를 중심으로 黃海道 南部 및 江原道 南部와 忠清道 地方에 分布하는 형식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 주맥평면의 始源的인 평면이며 平安道와 黃海道 北部地方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주맥평면의 始源的인 평면이기 때문에 全國的으로 分布되고 있는 형식인 西部型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 忠清北道가 韓半島의 거의 中心部에 位置하고 또 唯一하게 바다에 臨하지 않아 따라서 隣接하는 道가 많아서 그러한지 威鏡道를 中心하여 平安北道 一部 및 江原道 北部地方에 주로 分布하고 있는 北部型 平面도 若干 찾아볼 수 있어서 이 北部型的 變形 形態로 볼 수 있는 주로 脊標山脈 以東의 江原道 北部地方과 黃海道 一部地方에서 볼 수 있는 變型北部型 平面을 갖는 주택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또 서울에서 官職에 從事하다가 歸鄉한 人士에 의하여 세워지게 된 住宅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型 平面을 갖는 住宅도 少數나마 確認되었고 極少數의 住宅에서 慶尙道와 全羅道에 주로 分布하는 南部型 평면을 갖는 住宅도 찾아볼 수 있었다.

中部型 평면은 그 分布된 地域이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지 평면 형태가 서울型 평면과 類似하다. 그러나 中部型 住宅은 地方住宅이기 때문에 서울型的 경우와 같이 住宅의 垜地 輪廓에 따라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안채 평면이 「字形」이 된다. 그 평면은 대칭을 중심으로 그 左右에 온돌방을 배치하고 그 한쪽 방향에 다시 한 방 또는 두 방을 배치하고 그 끝에 부엌을 두는 形式이다. 즉 부엌이 「字形」로 꾸러진 平面의 한쪽 끝에 卞位置하게 되고 결코 부엌 끝에 다시 방이 連結되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은 中部型 平面을 갖는 住宅을 忠州市 宗民洞 六七九 林錫東氏 家屋을 비롯하여 鎭營鎭氏, 中原郡 泔味面 新梅里 三一八 이응선氏, 二〇七 이정숙氏, 提原郡 寒水面 驛里 七—二〇 권영수氏, 一二五 연영택氏, 鳴梧里 三〇三 權烈烈氏, 面倉里 四一八—一 尹仁漢氏, 四二〇—二 기해운氏, 清風面 陽平里 五

六〇 權鎬鎭氏、校里 정은행氏、挑花里 鄭雲稷氏、勿台里 이가와氏、鄭清憲氏、정용복氏、邑里 宋銀山氏、大柳里 金龍雲氏、黃石里 柳在浦氏、後山里 一〇五 柳永善氏、錦城面 城內里 三〇四 劉炳華氏、中田里 一四〇 柳生龍氏、水山面 院垡里 申鉉三氏、下川里 李寅浩氏、金晋甲氏 등의 住宅이 이 類型에 該當된다. 이 가운데 柳生龍氏 住宅은 垡地 畝 안쪽에 마치 都市型的 住宅과 같이 各屋內空間을 連結시켰고 甲鉉三氏 住宅은 兩通집 즉 建物の 側面 柱間이 두 칸으로 된 規模가 큰 住宅이며 그의 대청 뒷部分에 광을 設置하고 있었다.

西部型 평면은 주택의 안채가 부엌을 建物 끝에 配置하고 거기에 큰 방과 작은 방을 연결시킨 형식이며 대개의 경우 큰방(안방)이 좀 넓고 작은방(옷방)이 좁게 만들어지며 이들 방 앞에 퇴마루가 設置되는 경우가 많다. 이 型式의 주택 평면은 우리나라 住宅建物の 안채로서는 가장 單順하고 原始的인 住宅 즉 堅穴住居에서 地上住居로 發展되어 부엌과 방 하나가 나란히 配置된 形式에서 좀 더 發展하여 방이 두 칸이 된 形式이며 韓國 住宅의 基本的인 平面形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西部型 住宅은 비록 그 分布가 平安道와 黃海道 北部地方에 많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全國에 걸쳐 分布하는 形式이다. 이 型에 속하는 주택은 提原郡 寒水面 驛里 一四二 장재원氏、鳴梧里 三〇三 李圭泰氏、瑞雲里 四〇一 최문선氏、面倉里 김한고氏、장수형氏、淸風面 陶谷里 權龍洙氏、黃石里 一六四 유인형氏、芬興里 이규성氏、水山面 池谷里 朴千吉氏、表福安氏、丹陽郡 丹陽邑 장희리 우태옥氏 등의 住宅들이다. 이 가운데 우태옥氏 住宅은 끝방이 ㄱ字로 꾸부러진 一種의 變形 型式이나 이 類型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住宅의 變形된 原因은 邑內에 所在하는 住宅이기 때문에 垡地의 制約을 받아 부엌 部分이 꾸부러진 것으로 보인다.

北部型 平面은 그 방의 配置가 田字形으로 配置되는 것이 基本이며 따라서 建物 側面이 두 칸으로 된 兩通집이다. 이 평면은 부엌에 接하여 부엌 쪽에 칸막이 벽이 없고 바닥이 온돌로 된 「정지」라고 불리우는

空間이 있고 이 정지에 이어서 田字形으로 네 개의 방이 配置되는 形式이다. 많은 경우 부엌을 中心으로 정지와 反對되는 位置에 마구간이나 광 또는 방앗간 등의 格納施設이나 作業空間이 있어 이들이 모두 한 채의 建物 속에 設置되며 또 田字形으로 配置된 방 앞에 퇴마루를 設置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 型的 變形으로 볼 수 있는 配置形式 즉 變形北部型 住宅이 背樑山脈 以東의 江原道 北部地方과 黃海道 一部地方에 주로 分布하고 있다. 이 形式은 부엌에 接한 「정지」가 없어지고 이에 대신하여 부엌 앞쪽에 정지의 折半 정도의 흙바닥이 나타난 形式이다. 이 흙바닥을 「봉당」이라고 한다. 忠北地域에서는 이 變形北部型 住宅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이 「봉당」에 마루를 깔고 있다. 이 型式에 속하는 住宅은 中原郡 泔味面 新梅里 진관범氏、東良面 紙同里 五八七 최옥수氏、提原郡 寒水面 西倉里 三一九—二 최형수氏、김동수氏、淸風面 連論里 一—二四一 김정원氏、勿台里 김진수氏、邑里 三三七 金元甲氏、錦城面 中田里 柳海官氏、金昌熙氏、月窟里 柳寅甲氏、水山面 池谷里 표인은氏 등의 住宅이 있다. 이 가운데 김정원氏 住宅은 典型的인 變形北部型 즉 봉당이 흙바닥으로 된 住宅이다.

서울型 平面은 대청을 중심으로 左右에 방이 배치되고 그 한쪽 방 앞에 ㄱ字로 꾸부러지면서 부엌이 配置되는 形式이다. 흔히 부엌이 당 앞에는 방이 앞뒤로 나란히 배치된 두 칸의 방이 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한 칸의 방이 대청과 그 옆 방 앞에 設置된 퇴마루의 선보다 밖으로突出되는 경우는 없고 반 칸 정도가突出되고 그 끝에 부엌이 달려 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방이 必要할 때에는 부엌 끝에 다시 한 칸의 방을 配置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形式은 中部型과 區分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中部型的 경우는 분명히 방이 ㄱ字로 꾸부러져 따라서 방 한 칸 또는 두 칸이突出된 끝에 부엌이 달려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부엌 끝에 다시 방이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 서울型 平面으로 된 住宅은 提原郡 淸風面 挑花里 一帶에 集中되고 있었으며 김명국氏、崔容洛氏、崔慶洛氏、崔中洛氏、金周享氏、崔秉大氏 등의 住宅들이다. 이

서울형이 한 지역에集中되고 있으며 그것도 崔氏家門이 主가 된 것으로 보아 先祖에 서울과 깊은 關係가 있는 家門인 듯하다.

南部型 住宅은 대청을 중심하여 그 左右에 방을 配置하고 그 한쪽 방 끝에 부엌을 連結한 一字形의 平面形式이다. 이와 같은 南部型 住宅은 堤原郡 錦城面 月窟里 郭興元氏, 유인수氏의 住宅이다.

(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中原地域의 건축의 특징을 忠北道 內에 남아 있는 國家指定文化財인 石塔과 權威建築 및 忠州擘水沒地區 內에 있던 住宅 가운데 傳統的인 住宅의 構造 形態 그리고 平面들을 갖춘 標本的인 住宅들을 概觀하면서 그 속에서 探索해 보았다.

그 結果로서 石塔을 통해서는 他地域의 石塔에 比하여 크고 넓은 基壇 위에 塔이 세워지는 매우 強하게 安定感을 要求하는 이 地域 특유의 造形感覺을 찾아 볼 수 있었고 이와 같은 造形感覺에 의하여 우리나라 唯一한 五層木塔인 法住寺 捌相殿이 傳統的인 木塔의 架構樣式을 벗어나 鈍重하리 만큼 安全感이 큰 上部의 遞減이 強한 木造塔으로 表現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造形感覺은 他地域에서는 잘 찾아보지 못하는 지나치리 만큼 安定感을 要求한 感覺이라 하겠다.

忠清道 內에 遺存하는 石塔의 數는 比較的 많은 便이었다. 이들 石塔 가운데 五層 以上の 多層塔이 많다는 事實도 한 特色으로 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기가야 高句麗의 法統을 잇는다는 高麗時代에 建立된 石塔 가운데는 五層, 七層, 九層 등의 多層石塔이 많은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忠北地方에 遺存하는 統一新羅時代에서 高麗時代에 걸친 石塔 속에 그 半數 가까이 다 多層塔이라는 事實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筆者는 아직 全國의 範圍 속에서 三層塔과 多層塔의 遺存例의 比率를 檢討한 바 없었고 地域間의 比率의 差異에 대해서도 考察한 바 없었으므로 確實한 數字를 들어 이 忠北地方의 多層塔의 遺存比率이 크

다는 것을 證明치 못함의 유감이다. 어쨌든 이 地域에 多層塔이 많다는 事實은 이 地域의 趣向이나 感覺에서 多層塔을 選好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氣質 역시 이 地域의 특징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安心寺 大雄殿의 變形된 건물의 形態를 바탕으로 變形된 建築樣式을 하나의 完成된 樣式으로 定着하려는 試圖 역시 이 地域의 建築에 나타난 이 地域의 特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樣式을 創造하려는 意欲은 바로 改革의이며 進取的인 氣風이 이 地域에 強한 性格으로 定着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住宅 안채 平面形態에서 얻어진 結果는 역시 中部型 配置가 壓倒的으로 많이 存在하였으나 海岸에 臨하지 않은 唯一한 內陸道로서 忠北道에 隣接하는 他道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인지 비록 그 類例는 많지 않았으나 典型的인 北部型과 바다로 隔離되어 있는 濟州島에 많이 볼 수 있는 濟州島型 平面을 除外한 우리나라 住宅의 모든 地域에 存在하는 平面型이 忠北道 內에 分布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事實은 뚜렷한 이 地域의 住宅相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地域 住宅이 他地域에 比하여 더욱 多樣한 樣相을 지니고 있었음을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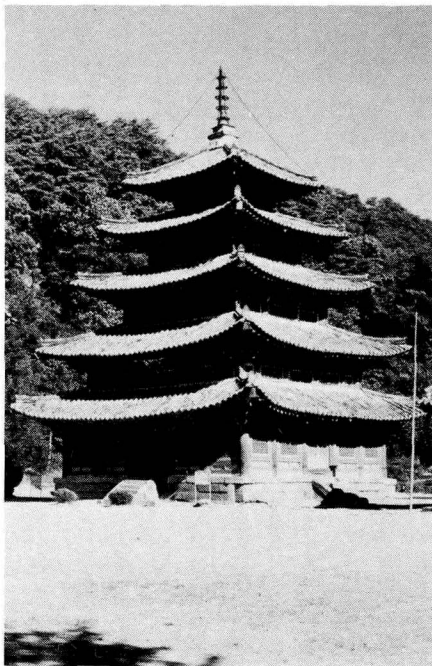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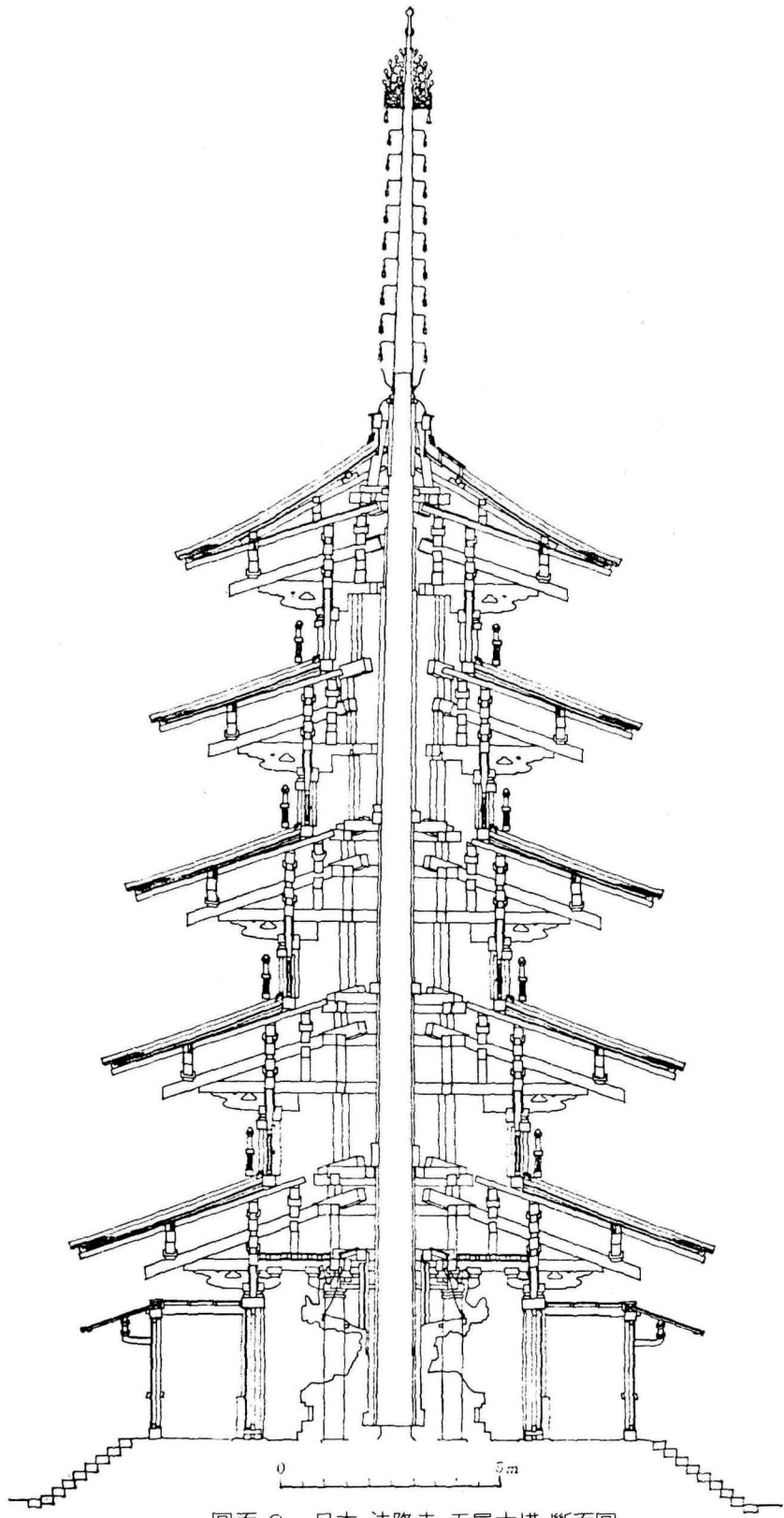
圖 1) 法住寺 捌相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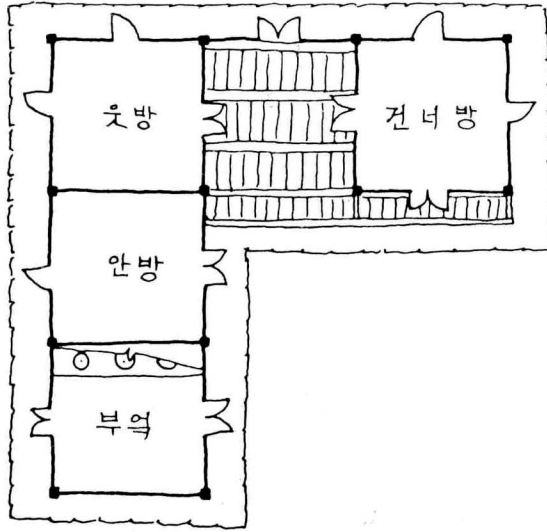
圖2) 清風 寒碧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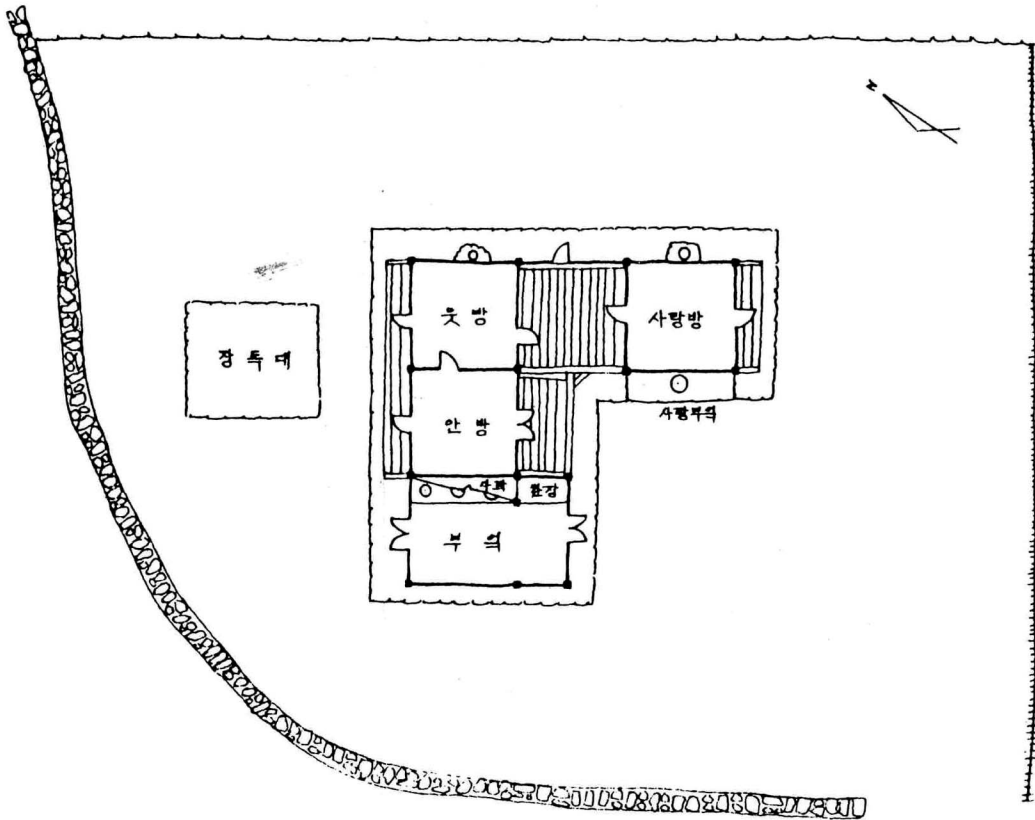
圖3) 安心寺 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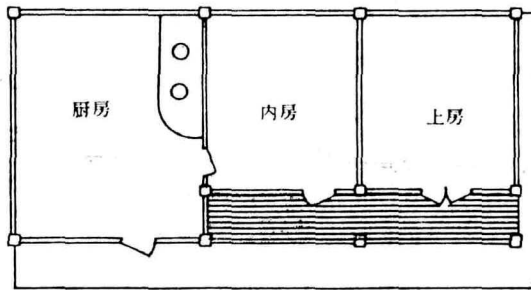
圖面 2. 日本 法隆寺 五層木塔 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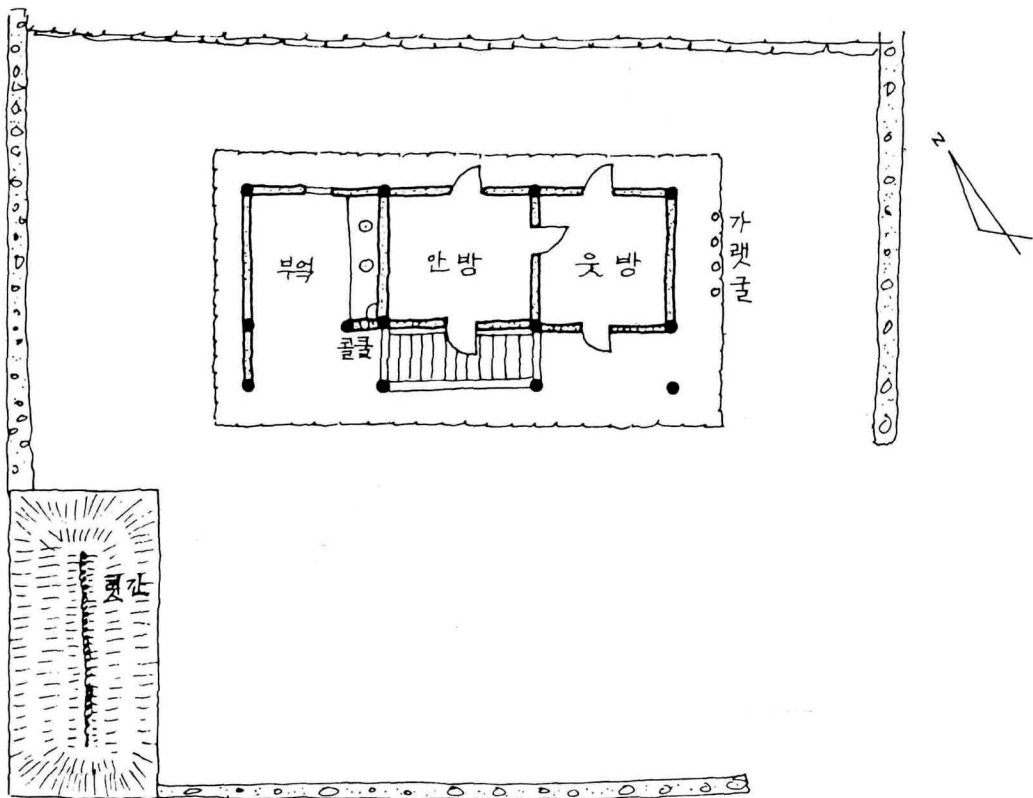
圖面 3. 中 部 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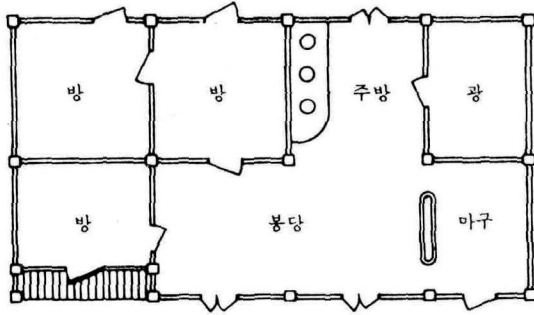
圖面 4. 忠北 堤原郡 寒水面 125
연 영 택 씨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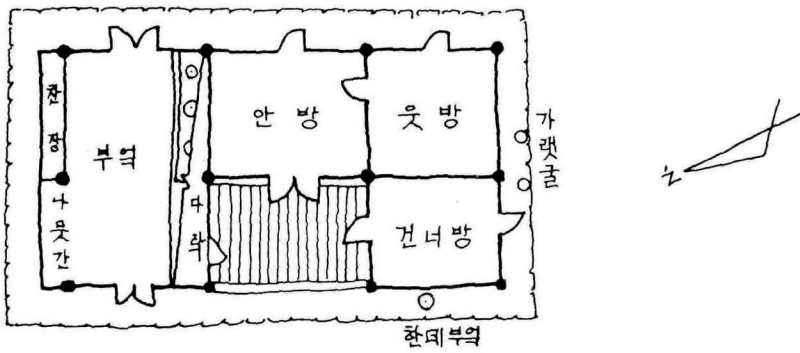
圖面 5. 西 部 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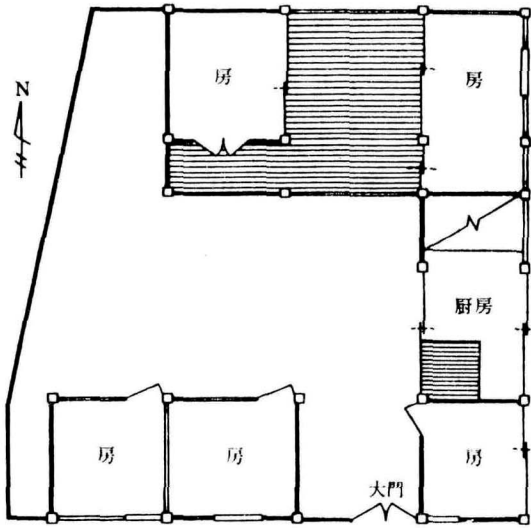
圖面 6. 忠北 堤原郡 寒水面 西倉里 덧말
김 한 고 씨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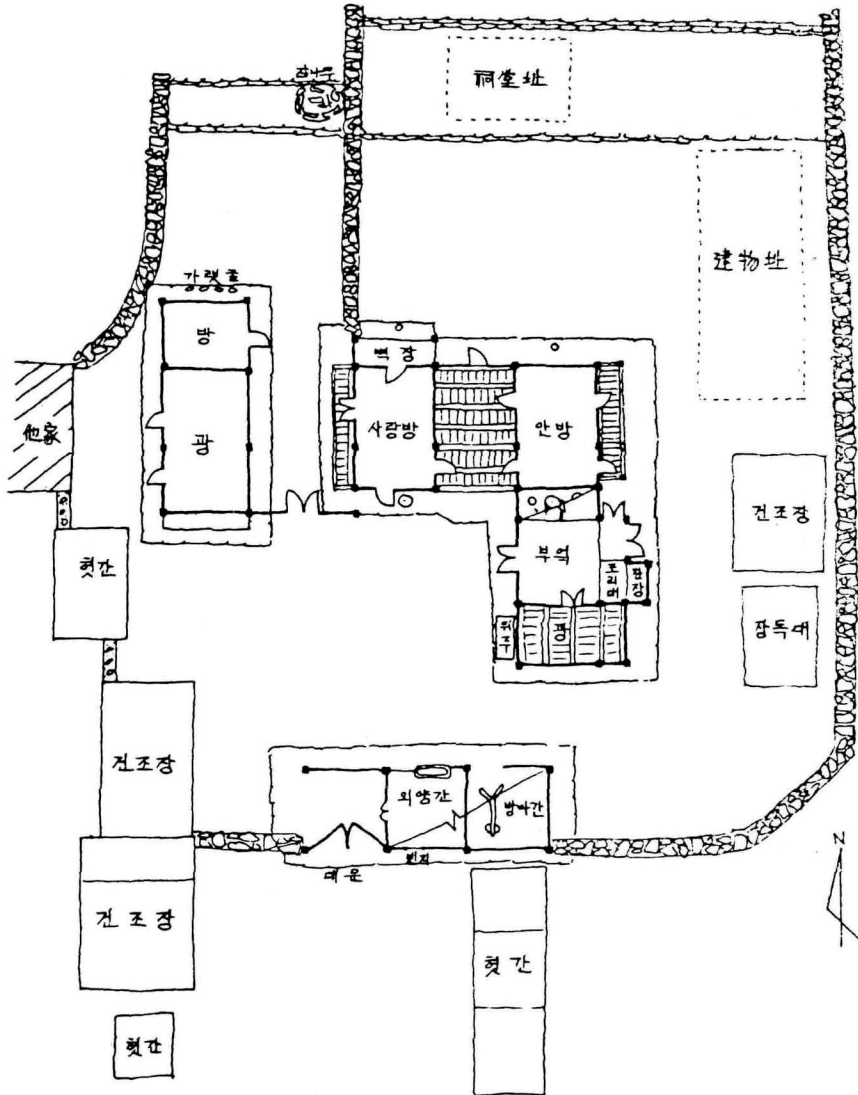
圖面 7. 北部型의 變形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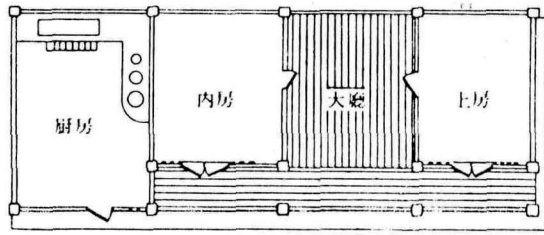
圖面 8. 忠北 中原郡 沙味面 新梅里 무궁골
진 관 범 씨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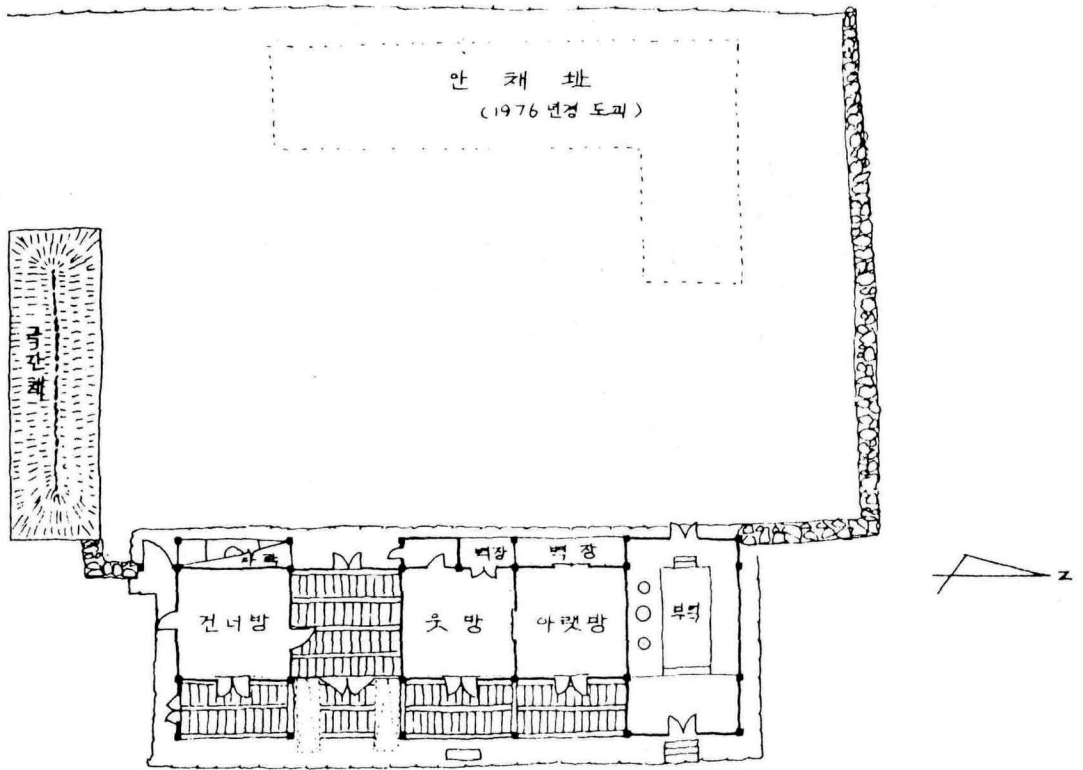
圖面 9. 서울型住宅



圖面 10. 忠北 堤原郡 水山面 池谷里 웃말
姜 富 遠 씨 가옥



圖面11. 南部型住宅



圖面12. 忠北 堤原郡 錦城面 月屈里
柳興元 씨 가옥